

이웃이 이웃의 눈을 치운다, 스노 코어

배경

- ◎ 볼티모어시의 제설 작업은 차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, 보도 제설은 조례상 주민의 의무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됨
- ◎ 고령자, 장애인 등은 폭설 시 스스로 보도의 눈과 얼음을 안전하게 치우기 어려워 이동과 안전에 어려움을 겪음
- ◎ 2026년 1월 23일 대형 겨울폭풍으로 볼티모어시에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시내 적설이 5인치를 넘어서자, 시장실 지역사회협력실(MOCA)이 스노 코어(Snow Corps)를 시범 프로그램으로 도입

주요 내용

- ◎ 볼티모어시는 도움이 필요한 주민과 돕고자 하는 이웃을 매칭하는 이웃 간 상호부조 방식(neighbor-to-neighbor)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'스노 코어'를 운영
 - 기존의 시 제설 작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성격임을 명시
 - 시는 차도 제설에 제설 차량 약 700대를 투입하는 반면, 스노 코어는 보도를 대상으로 함
 - 1월 시범운영 시 지원 대상은 고령자, 장애인 등 보도를 안전하게 치우기 어려운 주민
- ◎ 도움을 받는 주민과 돕는 주민 모두 같은 경로로 신청
 - 311 전화, 311 웹페이지, BALT311 앱 중 하나로 신청
 - 도움이 필요한 주민은 보도 제설 지원을 요청, 돕고자 하는 주민은 자원봉사자로 등록
- ◎ 긴급운영센터의 소규모 팀이 접수된 신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, 봉사자와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가능한 한 같은 동네 안에서 매칭
 - 2026년 1월 25일과 26일 시범 프로그램으로 가동
 - 휴교일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봉사학습시간 인정

◎ 시는 프로그램의 한계를 사전에 고지

- 자원봉사자 확보 여부에 따라 운영되므로 신청했다고 반드시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며, 시는 대응 시간이나 처리 완료를 보장하지 않음
- 자원봉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참여하며, 봉사 중 발생하는 부상이나 재산상 손해에 대해 시는 책임을 지지 않음

◎ 1월 시범운영 후 2026년 2월 22일 겨울폭풍 시 재가동. 이때 지원 대상을 ‘65세 이상 고령자와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’으로 구체화함

— 이경선 통신원



<https://www.baltimorecity.gov/moca/baltimore-snow-corps>

<https://www.baltimorecity.gov/mayor/news-media/press-releases/2026-01-25-C-city-of-baltimore-update-on-winter-storm-management>

<https://www.baltimorecity.gov/mayor/news-media/press-releases/2026-02-23-city-of-baltimore-morning-update-on-winter-storm-management-and-preparedness--feb-23-2026>

<https://snow.baltimorecity.gov/baltimore-housing-reminds-everyone-be-shovel-ready>

버스정류장을 하나씩 맡아 돌보는 주민 자원봉사

배경

- ◎ 산타모니카 시영버스 빅블루버스(Big Blue Bus)가 운영하는 정류장은 약 930개
 - 시 유지관리 인력만으로 모든 정류장의 청결과 안전 상태를 상시 점검하기에는 한계 존재
 - 정류장 훼손이나 오염을 시가 뒤늦게 인지해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 발생
- ◎ 대중교통 이용 경험의 질은 차량뿐 아니라 정류장 상태에도 좌우된다는 인식이 확산
- ◎ 빅블루버스는 정류장 조명·좌석·승하차 공간 개선을 위한 ‘더 나은 정류장 사업 (Better Blue Bus Stops)’을 병행 중으로, 입양 프로그램은 시설 개선과 일상 관리를 함께 묶어 접근

주요 내용

- ◎ 주민, 지역 상점, 시민단체가 특정 정류장을 ‘입양(adopt)’해 상시 관리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
 - 시 유지관리 작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성격
 - 입양자는 가벼운 청소와 정류장 상태 점검을 수행하고, 파손이나 안전 문제는 빅블루버스에 직접 보고
 - 시는 문제를 조기에 인지해 신속한 대응
- ◎ 봉사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한편, 안전을 위해 활동 범위를 명확히 제한
 - 무료 버스 승차권 및 전용 굿즈 제공
 - 차도나 갓길의 쓰레기 및 유해 폐기물은 수거 금지
 - 야간이나 악천후 시 활동 금지
 - 시나 빅블루버스의 공식 홍보대사 또는 직원 사칭 금지
 - 정류장 주변에 놓인 개인 소지품에 손대지 말고, 통행이 막힌 경우 빅블루버스에 신고
 - 청소 중 이어폰 착용이나 통화 금지

정책 효과 및 시사점

- ◎ 시 인력의 물리적 한계를 주민 참여로 보완. 봉사자가 곧 현장 모니터링 요원이 되어, 별도 점검 인력 고용 없이 효율적 관리가 가능
- ◎ 특정 정류장을 입양하는 방식은 주인의식과 지속적 책임감을 유발

— 이경선 통신원



<https://www.santamonica.gov/blog/introducing-big-blue-bus-s-adopt-a-stop-volunteer-program-0>
<https://santamonica.volunteermatters.org/project-catalog/158>